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 서울중앙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박세현

전화 02-530-4780 / 팩스 02-536-5410

**보도자료**  
2021. 5. 26.(수)

제 목

## A그룹 총수, 계열사 자금 횡령 및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

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
-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「A그룹 총수의 계열사 부당지원 등 사건」을 수사한 결과,
  - A그룹 총수 甲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,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,
  - 위 범행에 가담한 A그룹 전략경영실 임직원 乙, 丙, 丁 3명과 B社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각 불구속 기소하였음

## 1 피고인 및 처분 내용

순번	피고인	직위	죄명	처분
1	甲 (76세)	A그룹 총수(동일인), 前 B社 및 C항공사 대표이사	특경법위반(횡령) 특경법위반(배임) 공정거래법위반	'21. 5. 26. 구속 기소
2	乙 (49세)	前 A그룹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, 現 B社 고문	특경법위반(횡령) 특경법위반(배임) 공정거래법위반	'21. 5. 26. 불구속 기소 (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'21. 1. 11. 구속 기소*)

순번	피고인	직위	죄명	처분
3	丙 (55세)	前 A그룹 전략경영실장, 現 B社 고문	특경법위반(배임) 공정거래법위반	'21. 5. 26. 불구속 기소
4	丁 (53세)	前 A그룹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, 前 C항공사 재무담당 상무	특경법위반(배임)	
5	B社	C항공사의 母회사	공정거래법위반	

\*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 증거를 인멸하고 뇌물을 공여/수수한 혐의 등으로 A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1명(乙)과 前 공정위 디지털조사 담당 공무원 1명을 '21. 1. 11. 각각 구속 기소

## 2

### 공소사실 요지

순번	피고인	공소사실 요지
1	甲 乙	'15. 12. 28. E社가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C항공사의 母회사인 B社 경영권 주식을 인수할 수 있도록, D社 등 A그룹 4개 계열사 자금 총 3,300억 원을 인출하여 E社の B社 주식인수 대금으로 임의 사용 [특경법위반(횡령)]
2	甲 乙	'16. 4. 29. C항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D社 주식 100%를 E社에 2,700억 원에 저가 매각 [특경법위반(배임)]
3	甲 乙 B社	'16. 8. ~ '17. 4. B社 등 A그룹 9개 계열사로 하여금 E社에 무담보 저금리로 총 1,306억 원을 대여하게 함으로써 E社에게 부당한 이익 제공 [공정거래법위반]
4	甲 丙 丁 B社	'16. 8. ~ '17. 4. 'F그룹'이 E社에 약 1,600억을 투자(BW인수)해 주는 대가로 C항공사가 보유한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F그룹 계열사에 1,333억 원에 저가 매각 [공정거래법위반, 특경법위반(배임)]